

학교 적응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의 도덕판단: 도덕발달 단계 및 도덕지향을 중심으로

백혜정 · 이준목

성균관대학교 BK21 아동교육연구단

본 연구는 Kohlberg의 도덕판단 이론에 기초하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 19명과 일반 학생들 16명, 총 35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도덕판단에 있어서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Kohlberg의 가상적 3가지 딜레마(Form A)를 측정 도구로 사용하여 일대일 개인면담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도덕판단 발달단계와 도덕지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두 학생 집단의 도덕발달 단계 및 도덕지향 사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덕 발달단계를 보일 뿐 아니라 이기적 결과 지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으나 효과의 크기($\hat{\omega}^2$)를 살펴보았을 때 일반학생들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보다 공정성을 더 지향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규범적 질서 유지 지향에서의 성차와 이기적 결과 지향, 이상적 결과 지향 및 공정성 지향에서 적응수준×성별에서의 상호작용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수준과 도덕지향 사용 및 도덕 발달단계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들의 도덕판단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도덕지향, 도덕 발달단계, 도덕판단,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 생활 단을 비교함으로써 도덕 판단에 있어서 부적응에 부적응하는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간의 도덕판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나아가 교육적 측면에

1) 이 논문에 대한 연락은 hbaek@unitel.co.kr, smlyhl@chollian.net으로 하기 바람.

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청소년기에 속하는 개인들은 신체적, 생리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등에서 급격한 변화를 거치며 개인의 내부 및 외부에서 요구하는 일련의 발달과업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와 발달과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적절한 적응기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부적응의 문제를 겪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문제는 이후 성인기에 이르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고등학교 내에는,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등의 학교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학교 생활 부적응이란 여러 가지의 부적응 행동특성이 학교생활이라는 생활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부적합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학교의 교육적 가치, 규범 및 질서에 일치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거나 대인관계나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행동양식이 불균형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말한다(김기태 외 1996). 이러한 학교 부적응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학원폭력이나 청소년의 비행 역시 학교 부적응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이 학교 제도에서 이탈해 가는 과정이나 그 결과로 생겨난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김기태 외 1996). Masten & Coastworth(1998) 역시 규칙을 준수하는 행동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비행화 과정과

연결지어 설명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규칙을 위반하는 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은 학업성취가 저하되어 학업에서의 실패를 가져오며 이는 그들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분노감 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되어 교사나 건전한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하게 되며 빗나간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일찍이 심리학에서는 비행 청소년 또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부적응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 왔으며 그들의 도덕판단 발달에 대한 일련의 연구도 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올바른 도덕판단이 항상 올바른 도덕행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올바른 도덕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도덕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도덕판단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과 같은 선상에 있는 Kohlberg의 인지발달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예: 문용린 1986)의 경우,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예: 문용린 1986; 박종영, 이종현, 1982)은 Kohlberg의 이론에 기초하여 Rest가 개발한 객관식 검사도구인 DIT(The Defining Issues Test)를 사용한 연구들이다. Kohlberg가 개발한 검사도구는 주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채점자에게 고도의 훈련을 요구하는데 비해 DIT는 객관적인 채점이 가능한 검사도구라는데 그 장점이 있다. 그러나 DIT는 개인의 도덕발달 단계 파악만 가능할 뿐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도

덕 지향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또한 Rest는 Kohlberg와는 다소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으므로 DIT에서 한 개인의 도덕판단이 평균적으로 몇 단계에 속해 있는지 나타내 주기보다는 발달 단계를 F점수 또는 D점수 등으로 환산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덕발달단계 뿐 아니라 도덕지향을 같이 살펴보는데 있으므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인 DIT 대신 Kohlberg의 검사도구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Kohlberg의 도덕판단 검사를 사용한 이유는 개인의 도덕판단에 대해 일대일 면담을 통하여 도덕발달단계의 파악 뿐 아니라 도덕판단의 내용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도덕판단 연구 중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대부분은 그들과 일반 청소년들간의 도덕판단 단계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결과는 비행 또는 부적응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발달 단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예: 정향인, 1989). 이는 다른 나라에서 수행된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들의 비교연구와 흡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예: Rest, 1979; Gregg, Gibbs & Basinger, 1994). Smetana(1990) 역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지능과 기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행동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의 도덕발달 단계를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지발달론적 입장에서 도덕발달 단계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다. 하지만 Kohlberg의 도덕판단 이론에는 도덕발달 단계뿐만 아니라 도덕지향의 문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의

다양한 배경은 도덕지향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Garmon, Basinger, Gregg, & Gibbs, 1996; Gibbs, Arnold & Burkhart, 1984; Tappan, Kohlberg, Schrader, Giggins, Armon & Lei, 1987; Walker, 1989, Walker & Moran, 1991).

우리 나라에서는 도덕지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근간에 한국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에 따른 도덕 지향의 차이에 관한 연구(Baek, 1999)가 있을 뿐이다. 도덕판단에 있어서 도덕발달 단계가 사고구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도덕지향은 사고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덕판단의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연구대상이었던 사고구조뿐 아니라 사고내용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전에 김상윤(1994)은 Kohlberg의 도덕발달 단계에는 인지적 발달 특성 뿐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속되는 비인지적 요소도 내포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도덕판단의 내용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대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학교 부적응 문제 가 있는 학생들과 일반 학생간의 도덕발달 단계 뿐 아니라 그들의 도덕지향을 함께 비교해 봄으로써 부적응 학생들의 도덕판단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Kohlberg의 도덕판단 이론

Kohlberg(1969, 1984)의 도덕판단 발달이론은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이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도덕이슈를 포함하는 가상적 딜레마에서의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각 딜레마에서 갈등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도덕이슈 중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개인의 도덕판단은 시작된다. 그러나 Kohlberg는 어떤 이슈를 선택했는가보다는 왜 그 이슈를 선택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그 선택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한 개인의 도덕판단에 있어서 발달단계뿐 아니라 도덕판단시 지향하는 점은 무엇인지-즉, 도덕지향-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후 이 글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도덕판단에서의 발달단계”를 도덕발달 단계, “도덕판단에서의 지향”은 도덕지향으로 기술하였다.

이 두 가지 개념, 즉 도덕발달 단계와 도덕지향은 Kohlberg의 도덕판단 측정을 구성하는 개념들이라 할 수 있다. Kohlberg는 도덕판단 발달단계가 사고구조를 의미한다면 도덕지향은 사고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다시 말하면 도덕발달 단계가 한 개인이 어느 문화에 속해있는지에 상관없이 연령이나 학력 등에 따라 보편적으로 발달하는 인지구조와 관련된 것이라면 도덕지향은 개인이 속한 문화에 따라 그 사용정도가 다를 수 있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Kohlberg는 도덕발달 단계와 도덕지향, 이 두 가지가 개념적으로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도덕 지향의 사용이 도덕발달 단계와 상관없이 각 발달단계에서 골고루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속 연구들은 그들간에 다소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도덕판단 발달단계

심리학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Kohlberg는 도덕판단 발달단계를 크게 3가지 수준-전관습적, 관습적, 후관습적 수준-으로 나누고 각 수준마다 2단계씩, 총 6단계에 거쳐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덕발달 단계는 1단계부터 순서대로 처벌과 복종의 단계, 쾌락주의 단계, 착한 소년소녀 단계, 법과 질서유지 지향단계, 사회적 계약지향단계, 보편적 윤리지향단계로 각각 정의될 수 있다.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¹⁾. Kohlberg의 발달단계 이론 중 핵심은 바로 발달단계의 보편성을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느 문화에 속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의 도덕판단은 역행이나 생략되는 단계 없이 이러한 순서에 따라 발달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Kohlberg가 발달단계의 보편성을 주장한 것에 기초하여 많은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들은 이러한 보편성이 부분적으로나마 존재함을 검증하였다(예: Colby, Kohlberg, Gibbs & Lieberman, 1983; Edwards, 1975; Nisan & Kohlberg, 1982; Snarey, Reimer, & Kohlberg, 1985; Tietjen & Walker, 1985; Walker & Moran, 1991). 그러나 그 중 몇몇 연구자들은 문화 비교 및 종단적 연구를 통해 단계발달의 속도와 종결점에서 보편성보다는 문화적 차이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예: Edwards, 1975, 1978; Nisan & Kohlberg, 1982; Tietjen & Walker, 1985; Turiel, Edwards, & Kohlberg, 1978). 한 예로 케냐인들

1) 보다 자세한 설명은 국내의 논문 및 서적(예: 김민남 외 역.(2001). 도덕발달의 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등을 참고할 것을 권고한다.

을 대상으로 한 연구(Edwards, 1975, 1978)를 살펴보면 대학교육을 받았거나 서구화된 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개인은 4단계 이후의 발달단계를 보이는 반면 전통적 사회에서만 생활한 개인의 도덕판단 발달은 대부분 3단계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dwards(1975, 1978)는 이렇게 구성원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사는 작은 규모의 전통적 사회에서 3단계 이후 발달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러한 사회에서는 하위 단계의 도덕판단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더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Walker(1986a)는 북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단계 이후의 도덕판단 발달은 책임감, 의사 결정, 지도력 등의 개인적 경험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4단계 이후의 발달을 위해서는 보다 넓은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 및 고등교육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Kohlberg의 도덕판단 발달 단계에 있어서 3단계까지는 문화에 상관없이 그 순서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나 4단계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교육수준, 학업성적, 비행의 여부 및 성별 등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 따른 도덕발달 단계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들도 있어 왔다. 연구 결과들은 대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높고(Colby et al., 1983), 학업성적이 좋을수록(Narvaez, 1993), 그리고 비행집단이 아닐수록(Smetana, 1990) 높은 도덕발달 단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차에 있어서는 다소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Walker, 1986b). 흥미로운 것은 청소년

기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단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Gregg et al. 1994)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두 집단간의 전반적인 성숙도나 (Cohn, 1991) 사회적 경험의 차이(Lever, 1978)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비행청소년들의 도덕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행청소년들의 도덕성 성숙도는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예: Gavaghan, Arnold, & Gibbs, 1983; Chandler & Moran 1990; Smetana, 1990). 네덜란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De May, 1994, Tavecchio, Stams, Brugman & Thomeer-Bouwens, 1999에서 재인용) 통제집단인 일반청소년들의 경우 3단계의 도덕발달을 보이는 반면 비행청소년들의 도덕발달은 대부분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단계는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속에서 서로에 대한 기대를 수용하고 거기에 부응하려는 도덕판단인 반면 2단계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이익이나 기회주의적 사고에 따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단계에 속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있다고 믿을 때에만 비행행동을 하는 것이다(Thornton & Reid, 1982). 한편 대부분의 어린 아동들 역시 2단계에 속해 있으나 같은 단계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과는 달리 비행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그들의 욕구가 아직 약하고 물리적 능력이 부족하며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에 비해 어른의 엄격한 보호와 감독하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Tavecchio et al., 1999).

Smetana(1990)는 비행청소년들 중에서도 3단계에 속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Tavecchio와 그의 동료들(1999)은 가정에 거주하는 청소년들과 노숙하는 청소년들 간의 도덕발달단계를 비교하였다. 그들의 비교연구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 그들의 도덕발달단계는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자의 경우는 일탈행동에 있어서 도덕단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3단계에 속하는 청소년들 중 가정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비행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노숙하는 청소년들은 2단계에 속하는 청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비행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3단계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차이가 그들에게 안정된 사회적 관계 및 지지기반이 형성되어 있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3단계의 도덕판단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대에 부응하는 판단이 그 특징인데 자신이 안정적으로 속한 가정이나 학교가 없는 청소년들은 그러한 집단의 기대에 부응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굳이 하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행해진 선행연구 결과들 역시 대부분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보고된 발달단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연령이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박찬주, 1989; 안영진, 1987), 학업성적이 높을 수록(김성기, 1989) 내외통제성이 낮을 수록(안영진, 1987) 비행청소년이 아닐 수록(정향인, 1989; 박병희, 장경준, 신지용, 1996) 도덕발달 단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발달단계에서의 성차는 대부분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고되었고(안영진, 1987; 김선영, 1987) 종교 유무에 따라서는 비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었다(문영삼, 1988). 그러나 이러한 국내의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DIT를 사용한 것으로 DIT의 체점체계는 Kohlberg의 것과는 차이가 있

으므로(문용린, 1994) 선행 연구의 대상자들이 Kohlberg의 발달단계중 어디에 속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단지 DIT가 Kohlberg의 체점체계와 어느 정도 정적인 상관을 가지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DIT를 사용한 연구결과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지에 대한 검토만 가능할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적응 수준과 성별에 따른 도덕 발달 단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발달단계와 관련지어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성별에 상관없이 부적응 학생일수록 낮은 발달단계를 보인다.

도덕지향

도덕지향(moral orientations)은 도덕적 영역을 구분하거나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틀(frameworks)이나 관점(perspectives)을 의미한다. 도덕지향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제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규범적 질서 유지 지향(the orientation of upholding normative order)으로 합법과 규칙에서 유래된 의무와 정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이기적 결과지향(the orientation of egoistic consequences)은 행동의 결과로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 및 처벌의 정도 또는 자신에 대한 평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기적 결과지향은 넓은 의미에서 다음에 나오는 공리적 결과지향에 포함될 수 있다. 세째로 공리적 결과에 따른 판단(the orientation of utilitarian consequences)은 타인이나 자신 또는 양쪽 모두

의 이해(利害)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이다. 넷째로 이상적 또는 조화 기여적 결과지향(the orientation of ideal or harmony-serving consequences)은 타인의 승인과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양심, 동기, 존엄과 자율, 덕행 및 타인과의 조화를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자유, 평등, 공평, 계약 등을 지향하는 도덕적 판단을 내릴 경우는 공정성지향(the orientation of fairness)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죽어가는 부인을 위해 약을 훔친 것에 대해 판사가 처벌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판사의 의무를 언급한다면 이는 규범적 지향에 해당하며 판사 자신의 진급이나 평판(예: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하여)을 이유로 든다면 이는 이기적 결과의 지향에 해당한다. 또한 처벌의 이유로 사회의 안정이나 남편의 재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다면 이는 다수의 또는 집단의 이익을 지향하는 공리적 결과 지향에 해당하며, 범법자에 대한 교정의 기회 등을 이유로 든다면 이는 이상적 결과 지향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법의 평등성이나 범죄에 대한 응당한 댓가 등의 언급은 공정성 결과 지향에 해당한다.

Kohlberg는 도덕지향에 대해서 도덕발달 단계에 대한 것만큼 충분한 연구를 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다. 그러나 그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도덕지향 중 공정성 지향을 가장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었다(Colby & Kohlberg, 1987).

도덕지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개 다양한 요인들-성별, 딜레마 형태, 연령 및 도덕발달 단계, 그리고 문화 및 소속사회집단 등-에 따른 도덕 지향의 차이에 관한 것들이다. 그러나 아쉽게

도 도덕지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 중 비행이나 심리적 적응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도덕지향에 있어서 그들의 특징을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행 연구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

성별과 도덕지향 : 도덕지향에 대한 연구는 Kohlberg이론에 대한 Gilligan(1982)의 비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Kohlberg의 이론이 남성이 주로 사용하는 정의, 공평 및 권리 를 지향하는 도덕 판단을 상위 수준으로, 남성과 달리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배려, 감정 이입과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도덕 판단을 하위 수준으로 규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Kohlberg의 측정기준에 따르면 여성의 도덕판단 수준은 남성의 그것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반해 Gilligan 자신은 도덕지향을 공정성 지향과 배려 지향, 두 가지로 나누고 도덕판단에 있어서 남성은 공정성을, 여성은 배려를 지향하며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수준의 지향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의미하는 공정성 지향은 Kohlberg의 도덕지향 중 규범적 질서 유지 및 공정성 지향과 유사한 개념이며, 배려 지향은 Kohlberg의 도덕지향 중 이기적 결과, 공리적 결과 및 이상적 결과 지향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Gilligan의 비판 이후 그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예: Daniels, D'Andear & Heck, 1995; Garmon et al., 1996; Gibbs et al., 1984; Gilligan & Attanucci, 1988; Walker, 1989)이 도덕지향에서의 성차를 살펴보았으나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났다. 일련의 연구들은 (예: Garmon et al., 1996; Gibbs et al., 1984) 여성의 공정성 지향

보다는 배려 지향을 선호한다고 보고한 반면 또 다른 일련의 연구들은(Daniel et al., 1995; Gilligan & Attanucci, 1988; Walker, 1989)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Baek(1999)은 한국과 영국의 아동을 비교한 연구에서 한국 아동들이 특정 딜레마, 즉 소년의 딜레마(Joe's Dilemma)에서만 공리적 지향의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1$) 성차를 보고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모든 딜레마에서 고르게 나타난 성차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연령 및 도덕발달 단계와 도덕지향 :도덕발달 단계와 도덕지향은 개념적으로 서로 독립적이라는 Kohlberg의 가정과는 달리 일련의 선행 연구들은 연령 및 도덕발달 단계와 도덕지향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예: Tappan et al., 1987; Walker, 1989). Tappan과 그의 동료들(1987)은 여러 종단적 문화비교 연구들(예: Colby et al., 1983; Lei & Cheng, 1984, Snarey, 1985)에서 재인용; Nisan & Kohlberg, 1982)을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각 발달단계를 A와 B, 두 개의 하위 형태로 나누었다. A형태는 도덕판단에 있어서 규범적 질서 유지, 이기적 결과, 그리고 공리적 결과를, B형태는 이상적 결과와 공정성을 주로 지향하는 형태로서 후자는 전자에 비해 좀 더 성숙한 형태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같은 3단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3A단계보다는 3B단계를 상위단계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각 발달단계를 상위와 하위단계, 즉 A와 B형태로 나눌 뿐 아니라 발달단계에 따른 선호 형태의 차이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개인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발달 단계가 높아져 가는 동시에 A형태보다는 B형태를 더 지향하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령과 도덕발달 단계가 낮을수록 규범적 질서 유지, 이기적 결과, 그리고 공리적 결과를 지향하는 도덕판단을 하며 연령과 발달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상적 결과 또는 공정성을 지향하는 판단을 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A형태에서 B형태로 전이되는 경우가 B형태에서 A형태로 전이되는 경우보다 최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Walker(1989) 역시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통해 Tappan과 그의 동료들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한편 Baek(1999)은 우리 나라 7세에서 1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존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기의 아동은 A형태를 주로 지향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기적 결과 지향을 제외하고는 A형태뿐 아니라 B형태까지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지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Baek은 아동들의 도덕지향은, 성인들의 결과는 달리, 연령에 따라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도덕지향으로 옮겨지는 전이적 형태보다는 기존에 사용하던 도덕지향에 새로운 지향이 더해지는 확산적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위와 같은 도덕지향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발달단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서로 연관시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도덕지향에 있어서 일반 청소년과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들의 특징 및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아래의 가설들은 선행 연구들에게서 아직 시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가설2: 일반 학생들의 발달단계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벌달단계보다 높을 것이라는 가정(가설1)하에 두 집단간의 도덕지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A형태 중 이기적 결과 지향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 2-2: A형태의 도덕지향중 규범적 질서 유지 지향과 공리적 결과 지향 사용에 있어서는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 2-3: 일반학생들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 비해 B형태의 도덕 지향(이상적 결과 및 공정성)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이는 Baek(1999)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Baek의 연구에 따르면 벌달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기준에 사용하던 A형태의 3가지 지향 중 이기적 결과 지향은 줄어들고 나머지 두 지향에 이상적 결과 및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지향이 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비해 벌달 단계가 높다면(가설1) 그에 따라 기준에 사용하던 A형태의 3가지 지향 중 이기적 결과 지향은 줄어들고 두 지향에 이상적 결과 및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지향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벌달 단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 생활 부적응 청소년은 아직 기준에 사용하던 3가지 지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일반 학생들은 남녀 각각 8명씩 총 16명을,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은 남녀 각각 11명과 8명씩 총 19명을 선발하였다. 일반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의 판단 하에 학업성적이 중간 정도 되며 학교 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들로 선발되었다. 또한 이들이 지각하는 자신들의 가정형편은 모두 중산층이었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은 서론에서 언급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정의에 기초하여 해당학교 상담 선생님의 도움으로 무단 결석 · 조퇴 · 지각 및 교칙 위반 등의 문제를 비교적 지속적(한 학기 이상)으로 보여 학교 내에서 상담을 받는 학생들로 선발되었다. 이는 DSM-IV에 나타난 품행장애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가벼운 정도의 품행장애에 가까운 학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²⁾.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신들의 가정형편은 중산층 또는 중하류층이 대부분(각각 12명과 5명이며 중상류층은 2명)이었으며, 그들의 학업성적은 중간에서 중하(각각 15명과 4명)에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도덕판단을 측정하기 위하여

2) 품행장애란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나이에 적합한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가벼운 정도의 품행장애란 진단을 내리기 위해 요구되는 정도를 초과하여 나타나는 품행문제가 매우 적고 무단 결석이나 거짓말 등 다른 사람에게 가벼운 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Kohlberg의 가상적 딜레마 3가지(하인즈의 딜레마, 경찰관의 딜레마, 그리고 소년의 딜레마: Form A, Colby와 Kohlberg, 1987)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딜레마는 Baek(1999)의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된 것으로 등장 인물의 이름이나 화폐단위 등이 한국식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원어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절 차

모든 자료수집은 연구 대상자들이 재학중인 학교에서 일대일 개인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일인당 면접시간은 대략 30~4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표준화된 질문에 대한 자발적인 답변을 녹음한 후 채점을 위해 녹음 내용을 기록하였다.

채점 방식은 Kohlberg의 요강(Colby & Kohlberg, 1987)에 따라 도덕발달 단계와 도덕지향 두 가지를 모두 채점하였다. 요강에 따르면 응답된 내용들의 단계 및 지향을 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각 추정된³⁾ 발달단계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점수를 WAS (weighted average scores; 가중평균점수)라고 하며 이 점수를 바탕으로 도덕판단에 있어서 전체 발달단계(global stage)가 계산된다. 전체 발달단계는 마지막 6단계가 제외된 9단계 척도(1, 1/2, 2, 2/3, 3, 3/4, 4, 4/5, 5)가 사용되

었다. 1/2단계, 3/4단계, 4/5단계는 앞과 뒤의 숫자가 나타내는 단계들 사이의 중간단계를 의미한다. 도덕지향의 경우 위에서 짧깐 언급했듯이 응답한 내용 중 요강에 나타난 준거 기준에 부합되는 내용만을 추려낸 후 그 기준에 따라 5가지 지향으로 분류하였다. 즉, 요강에 예시되어 있는 응답과 유사하며 또한 요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지향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응답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분류되었다⁴⁾. 이후 각 지향 별로 언급된 총 횟수를 계산하였다.

발달단계 및 도덕지향에 대한 채점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첫 번째 채점자가 채점한 내용 중 무작위로 20문장을 선정하여 첫 번째 채점자의 채점 내용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채점자로 하여금 다시 채점하도록 하였다. 신뢰도는 두 채점자가 독립적으로 측정한 발달단계와 지향에 대한 두 채점자간의 일치도(Cohen의 kappa, SPSS 10.0 for windows)를 통해 각각 측정하였다. 발달단계에 대한 두 채점자간의 일치도 kappa는 .60으로, 도덕지향에 대한 일치도 kappa는 .72로 나타났다.

3) 각 발달단계에 대한 자세한 추정방법은 요강(Colby & Kohlberg, 1987)을 참조바람.

4) 각 지향별로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규범적 질서 유지 지향: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언급.

이기적 결과 지향: 평판에 대한 우려 및 보상/처벌의 유무에 대한 언급.

공리적 결과 지향: 집단에 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언급.

이상적 결과 지향: 사회적 조화 및 인간에 대한 존중에 대한 언급.

공정성 지향: 각기 다른 입장에 대한 균형잡힌 고려 및 형평성 유지에 대한 언급.

각 지향들이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요강(Colby & Kohlberg, 1987)을 참조바람.

표 1. 각 집단별 WAS의 평균(표준편차)

	적응	부적응	전체
남자	322.00 (24.49)	276.45 (18.93)	295.63 (31.08)
여자	331.00 (19.96)	279.88 (15.57)	305.44 (31.56)
계	326.50 (22.08)	277.89 (17.22)	300.11 (31.23)

결과

도덕발달 단계

Kohlberg의 가상적 딜레마를 통하여 도덕발달 단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도덕발달 단계의 바탕이 되는 WAS(가중 평균 점수)의 전체 평균은 300점(표준편차 31)으로 이는 관습적 수준에 속하는 3단계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각 집단별 WAS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1에 제시되었다. 도덕발달 단계에 있어서 본 연구에 참가한 일반-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간의 차이 및 성차, 그리고 두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SPSS 10.0 for windows)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검증 전 각 집단별 사례수가 동일하지 않아 Levene 통계량 계산을 통해 분산의 동질성

을 확인하였다($F(3, 31)=.339, p> .80$).

표2에 제시된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차 및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유의도 수준을 발달단계에 대한 연구가설에 비추어 볼 때 일반학생에 비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도덕발달 단계가 낮을 것이라는 연구가설(가설1)은 지지되었다.

한편 $\hat{\omega}^{25)}$ 에 따른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았을 때 적응수준이 도덕발달단계 설명에 큰 효과(.61)를 가지며 성별은 작은 효과(.02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되었다.

표 2. 집단에 따른 분산 분석^a

변산	Type III SS	df	MS	F	ω^2 ^b
적응수준	20057.940	1	20057.940	50.678*	.613
성별	331.111	1	331.111	.837	.025
적응수준×성별	66.818	1	66.818	.169	.005
잔차	12269.602	31	395.794		

a: 종속변수는 WAS

* p<.001

b: ω^2 는 변산원이 가지는 효과의 크기(effect size)를 나타내는 지수 중 하나로서 Cohen(1977)과 Keppel(1991)이 제시하는 해석용 지침은 다음과 같다.

0.01이상 0.06미만: 작은 효과로 행동과학 및 사회과학에서는 효과크기가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0.06이상 0.15미만: 중간 효과로 의미있고 연구가치가 있는 정도라 할 수 있다.

0.15이상: 큰 효과를 가진다.

여기서는 추정치이므로 $\hat{\omega}^2$ 라고 표기하였다.

도덕지향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의 도덕지향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성별 및 적응수준에 따른 학생들의 도덕지향 사용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표 3은 각 집단별 도덕지향 사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며 학생간의 도덕지향사용의 차이를 보여준다. 제시된 표 3과 그림 1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지향사용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적응수준에 따라서는 이기적 지향과 공정성 지향사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학생들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비해 공정성 지향을 더 많이 사용하며 이기적 지향은 덜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적응수준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ANOVA)을 통해 학생들의 각 지향에 대한 언급횟수와 성별 및 적응수준(일반-학교생활 부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각 집단별 사례수가 동일하지 않아 검증 전 Levene 통계량 계산을 통해 분산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규범적 결과 지향 $F(3, 31)=3.02, p>.04$; 이기적 결과지향 $F(3, 31)=50, p>.68$; 공리적 결과 지향 $F(3, 31)=1.16, p>.34$; 이상적 결과지향 $F(3, 31)=1.73, p>.18$; 공정성 지향

$F(3, 31)=.08, p>.97$).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향사용에 있어서는 적응수준 및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단지 이기적 결과 지향의 경우 $p<.05$ 수준에서는 적응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이기적 지향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본 바로는 일반학생들의 경우 이기적 결과 지향을 사용한 학생은 16명 중 7명인데 비해 학교생활 부적응의 경우 19명 중 15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이기적 결과지향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가설2-1)은 지지되었다. 또한 이기적 결과 지향의 $\hat{\omega}^2$ 를 살펴보면 .17로 효과의 크기 역시 큰 편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지향은 유의도 검증의 경우 주변적인 (marginal) 상태였다($p=.06$). 그러나 효과크기의 추정치인 $\hat{\omega}^2$ 는 .10으로 효과의 크기는 큰 편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이기적 결과 및 이상적 결과, 공정성 지향 사용에 있어서 일반학생집단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각각 가설2-1과 2-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기적 결과 지향의 경우는 유의도 수준과 효과의 크기 모두, 공정성 지향의 경우는 효과의 크기를 통해 집단간 차이가 지지되었다.

- 5) Cohen(1977)에 따르면 “큰” 효과가 “의미있는” 효과가 된다. 그러나 $\hat{\omega}^2$ 의 값이 작아도, 작게 세분된 독립 변수일 경우 그 의미를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실험연구일 때 특히 강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hat{\omega}^2$ 가 가급적이면 중간크기에 가깝거나 그 값을 초과할 경우를 해석대상으로 하였다. F값이 유의하지 않을 경우 표본크기가 작은 본 연구의 성질상 검증력이 작은데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작은 검증력에 의해서 F검증의 기능이 제한되므로 변산원이 가지는 효과의 크기를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즉 F값이 유의하지 않다고 변산원이 유의하지 않다고 한다면 2종 오류의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hat{\omega}^2$ 의 해석에 의해서 보완하고자 한다.

표 3 각 집단별 도덕지향 사용의 평균과 표준편차

규범적			이기적			
	적용	부적용		적용	부적용	
남자	3.25(1.17)	3.27(1.10)	3.26(1.10)	.25 (.46)	1.18(.75)	.79(.79)
여자	4.12(1.73)	3.50 (.53)	3.81(1.28)	.75 (.70)	1.00(.76)	.88(.72)
전체	3.69(1.49)	3.37 (.90)	3.51(1.20)	.50 (.63)	1.11(.74)	.83(.75)
공리적			이상적			
	적용	부적용		적용	부적용	
남자	1.88(1.13)	1.91(1.38)	1.89(1.24)	2.75(1.58)	2.36(1.03)	2.53(1.26)
여자	1.75 (.46)	2.00(1.07)	1.88 (.81)	2.13 (.83)	2.75 (.89)	2.44 (.89)
전체	1.81 (.83)	1.95(1.22)	1.89(1.05)	2.44(1.26)	2.53 (.96)	2.49(1.09)
공정성						
	적용	부적용		적용	부적용	
남자	2.75(1.17)	2.64(1.21)	2.68(1.16)			
여자	3.37(1.06)	1.88(1.46)	2.63(1.45)			
전체	3.06(1.12)	2.32(1.34)	2.66(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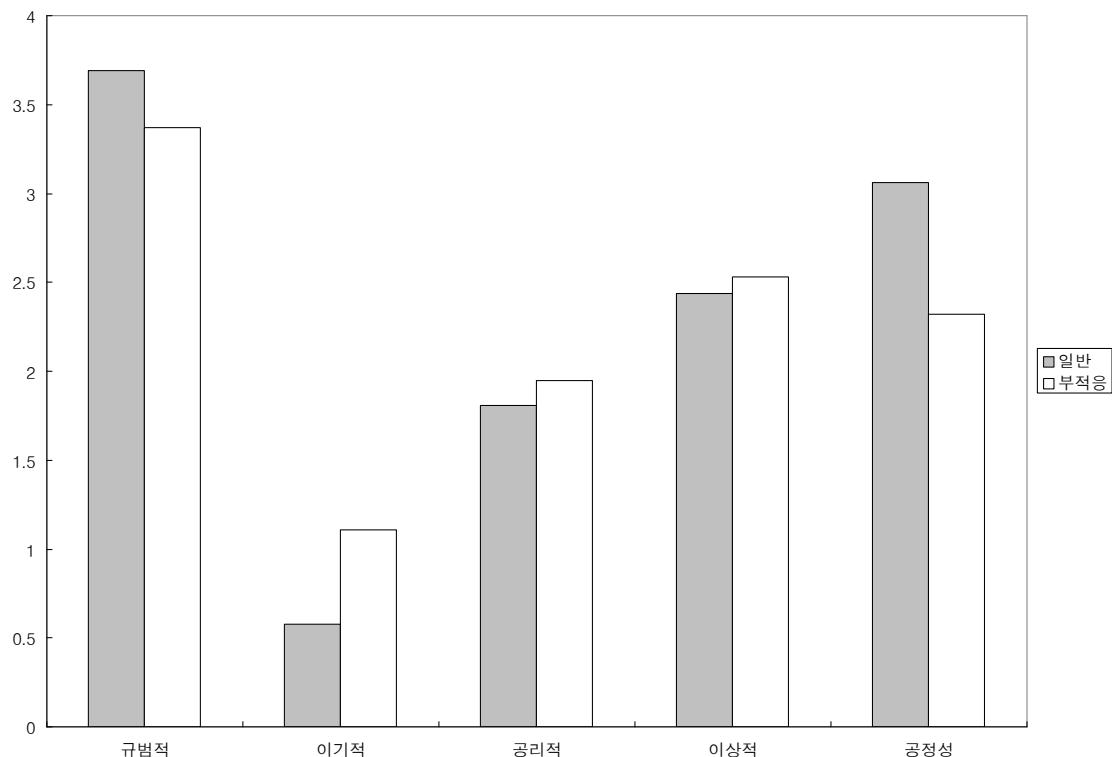


그림 1. 일반-부적응 학생들의 도덕지향 사용정도

표 4 각 도덕지향별 이원변량분석 결과

도덕지향	변산	Type III SS	df	MS	F	$\hat{\omega}^2$
규범적	적응수준	.779	1	.779	.542	.017
	성별	2.608	1	2.608	1.814	.054
	적응수준×성별	.900	1	.900	.627	.020
	잔차	44.557	31	1.437		
이기적	적응수준	2.998	1	2.998	6.349*	.170
	성별	.217	1	.217	.460	.014
	적응수준×성별	.998	1	.998	2.113	.063
	잔차	14.363	31	.463		
공리적	적응수준	.173	1	.173	.144	.005
	성별	.002	1	.002	.002	.000
	적응수준×성별	.100	1	.100	.083	.003
	잔차	37.284	31	1.203		
이상적	적응수준	.122	1	.122	.099	.003
	성별	.122	1	.122	.099	.003
	적응수준×성별	2.195	1	2.195	1.771	.052
	잔여변량	38.420	31	1.239		
공정성	적응수준	5.589	1	5.589	3.702	.104
	성별	.04	1	.04	.026	.001
	적응수준×성별	4.125	1	4.125	2.733	.079
	잔차	46.795	31	1.510		

* p<.05

즉,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이기적 결과 지향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일반학생들은 부적응 학생들에 비해 공정성 지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표3참조). 또한 유의도 수준과 효과의 크기, 모두를 통해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과 공리적 결과지향 사용에서는 적응수준별 집단간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가설2-2)도 지지되었다.

그 외에도 유의도 검증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하더라도 값이 중간에 가깝거나 그 이상인 $\hat{\omega}^2$ 를 살펴본 결과 규범적 질서 유지 지향에서는 성별의 차이가(.05), 이기적 결과 지향, 이상적 결과 지향 및 공정성 지향에서는 적응수준×성별의 차이가(각각 .06과 .05, .08) 중간 크기에 가깝거나 초과하는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별에 따른 도덕지향의 차이가 있

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즉, 표3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규범적 질서 유지 지향의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향사용에서의 적응수준×성별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기적 결과 지향사용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경우 적응 수준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다. 한편 이상적 결과 및 공정성 지향사용에서는 반대로 여학생의 경우 적응수준간의 차이가 큰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지향 사용에 대한 본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였다.

논 의

일반-부적응 학생들의 도덕판단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도덕발달 단계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고등학생들의 WAS 평균 점수는 300점으로 이를 발달단계로 환산하면 관습적 수준인 3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단계는 도덕판단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집단 안에서의 인간관계 및 그들에게 받는 인정(approval)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기는 하지만 사회체제에 대한 고려는 아직 부족한 단계이다. 아쉽게도 이러한 결과를 국내에서 이루어진 도덕발달 단계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해보기는 어렵다. 이는 국내의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DIT를 도구로 사용하고 평균 발달단계 대신 P점수 등을 사용하는 등 점수 산출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도덕발달 단계에 있어서 각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적응수준 간의 차이를 볼 때 일반 학생들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간의 WAS 평균이 각각 326점과 27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를 발달 단계로 환산한다면 전자의 경우는 3/4단계에, 후자는 2/3단계에 근접한 점수이다. 이는 비행청소년들(평균연령 16세)은 대부분 2단계에, 일반청소년들은 3단계에 속한다는 선행 연구결과(De May, 1994, Tavecchio et al., 1999에서 재인용)와 비교하여 약 ½단계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응수준 등에 있어서 두 연구 대상자들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명확한 비교를 하기는 힘들

다. 단지 두 연구 모두에서 도덕판단에 있어서 일반학생들과 부적응 학생들간에 한 단계 정도의 차이가 나며 이러한 차이가 2, 3단계를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적응수준에 따른 발달단계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부적응 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도덕발달 단계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국내외의 여러 선행 연구들(예: Smetana, 1990; 박병희 외 199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도덕발달 단계에서의 이러한 두 집단간의 차이는 Kohlberg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단지 두 집단 학생들간의 인지구조 발달의 차이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Kohlberg의 그러한 주장은 경험적 연구에 의해 반박되어 왔다(김상윤, 1989). 김상윤(1989)은 Kohlberg가 인지적 특성에 따라 정의한 도덕발달 단계에는 인지적 특성 뿐 아니라 이타적 감정 등의 정의적 특성, 즉 비인지적 요인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일반학생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간에는 인지적 구조뿐 아니라 비인지적 요인간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비인지적 요소들간의 차이는 도덕지향을 살펴보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도덕지향에 있어서 두 집단의 차이가 발달 단계에서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지향에 있어서 두 집단간의 차이는 다음 절에서 논의 될 것이다.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적응수준에 상관없이 여학생들의 발달단계 평균이 남학생들의 것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효과의 크기로 작은 편으로 나왔다. 이는 청소년기의 경우 사회적 경험 및 전반적인 성숙의 차이로 인해 여자

가 남자에 비해 높은 도덕발달 단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주장(Cohn, 1991; Lever, 1978)을 충분히 지지하지는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발달단계에서의 성차는 대부분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고된 선행 연구결과(안영진, 1987; 김선영, 1987)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국외의 경우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여학생의 발달단계가 남학생의 그것에 비해 높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달리 국내에서는 남녀 학생간의 성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후연구에서 이러한 차이의 원인 규명과 이러한 차이가 단지 도덕발달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인지 그 외의 다른 사회·인지적 영역에서도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덕지향

도덕지향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다른 도덕지향들의 사용정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그림1) 고등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수준에 상관없이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낮은 도덕발달 단계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B형태(이상적 결과 및 공정성 지향)보다는 A형태의 도덕지향(규범적 질서유지, 이기적 결과 및 공리적 결과 지향)을 한다는 Tappan과 그의 동료들(1987)의 주장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한 개인의 권리 주장보다는 국가나 학교, 가족 등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의 집단원으로서의 의무나 본분이 우선시되는 우리 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도덕지향에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발달단계를 지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이 높게 나온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반면 성인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감소된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고등학생들의 규범적 질서 유지 지향 선호는 단지 발달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규범적 지향에서는 성별간의 차이 겸종에서 효과의 크기($\hat{\omega}^2$)를 살펴보면 중간 크기에 가깝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규범적 질서 유지 지향을 더 선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규범적 질서 유지 지향이 공정성 지향에 해당된다고 할 때 여성은 배려 지향을, 남성은 공정성 지향을 각각 더 선호한다고 지적한 Gilligan의 주장 및 일련의 선행연구(예: Garmon et al., 1996; Gibbs et al., 1984) 결과에 상반되는 것이며, 도덕 지향에 있어서 성차는 없다고 한 연구 결과(예: Walker, 1989)와도 다른 것이다. 한편 Daniel과 그의 동료들(1995)은 하와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녀청소년 모두 배려 지향 선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음을 지적하며 도덕 지향에서의 성차는 문화에 따라 다른 경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개인은 사회적 규범이나 요구에 순응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 그 경향이 여자의 경우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본 연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와는 달리 Baek(1999)은 한국아동의 도덕지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든 딜레마에서 고르게 나타난 성차

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도덕지향에 보여지는 성차에 대한 결론은 보다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기적 결과 지향은 일반 학생들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 사이에서 모두 가장 적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Baek(1999)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7세에서 16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린 아동일수록 이기적 결과 지향을 많이 사용하며 연령증가에 따라 다른 지향과는 달리 이기적 결과 지향의 사용은 급격히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에서도 적응수준에 상관없이 이기적 결과를 지향하는 정도가 다른 지향 정도에 비해 낮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집단을 비교해 본 결과 적응수준과 이기적 결과 지향 사용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발달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이기적 결과 지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도 수준은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효과의 크기가 큰 편인 적응수준간 공정성 지향의 차이를 여기서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일반학생들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 비해 공정성을 더 많이 지향하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한 개인의 도덕발달 단계가 높아질수록 A형태에서 B 형태의 도덕지향으로 선호도가 변한다는 연구결과(Tappan et al., 1987; Walker 1989)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적응수준×성별에서 나타난 효과의 크기로 살펴보면 적응수준에 따른 도덕지향 사용의 차이는 남녀학생 집단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이기적 결과 지향에서는 남학생집단

에서 적응수준간의 차이가 두드러진 반면 이상적 결과 및 공정성 지향에서는 여학생집단에서 적응수준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도덕지향 사용에 남녀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의 경우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이기적 결과 지향을 선호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부적응 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이상적 결과 및 공정성 지향을 덜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지에 대한 것은 현재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도덕발달단계에는 비인지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김상윤, 1989)에 비추어 볼 때 도덕지향에 있어서 이러한 두 집단의 차이가 도덕발달 단계에서의 차이를 가져왔다고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일반학생들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간의 도덕발달 단계의 차이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차이라기보다는 도덕지향과 같은 비인지적 측면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도덕지향 및 발달단계에 대한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덕판단에 있어서 본 연구에 참가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경우 그들의 이기적 결과 지향 선호와 2/3단계의 상대적으로 낮은 발달단계는 도덕적 딜레마상황 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딜레마상황에서의 문제해결에도 전이되어 사용될 수 있다. 도덕판단에서 2/3단계의 발달단계는 자신에 대한 중요한 타인들의 기대를 부응하려는 판단(3단계)

과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이익이나 기회주의적 사고에 따른 판단(2단계)이 혼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그들이 보이는 2단계의 경향은 도덕지향에서 이기적 결과지향의 선호 및 이상적 결과, 공정성 지향의 비(非)선호로 반영되었다. 이기적 결과 지향과 연관지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도덕적 상황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상황을 해결하고자 할 때 추구하는 것을 가정해본다면 함께 어울리는 또래 집단에서의 인정이나 눈앞에 있는 처벌에 대한 기피 등 개인의 단기적 이익 추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단기적 이익 추구는 개인으로 하여금 학교의 교육적 가치, 규범 및 질서 등을 내재화하기 어렵게 하여 학교 제도에 보다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집단으로 전락하게 만들기 쉽다. 소외집단으로의 전락은 결국 그들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분노감, 실패감 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되는 악순환을 만든다(Masten & Coatsworth, 1998). 따라서 그들의 이기적 결과 지향 경향은 바로 학교생활 부적응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일반 학생들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홍성훈, 2000) 이기적 결과 지향이 아닌 공정성이나 이상적 결과 지향 등의 보다 높은 차원의 지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들이 발달단계에 있어서 3단계의 특징도 동시에 보이는 것은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여 인정을 받기 위한 판단을 하는 경향도 있음을 반

영해 준다. Tavecchio와 그의 동료들(1999)은 3단계의 발달수준을 지닌 이들의 부적응 행동은 그들이 가정이나 학교장면에서의 안정된 사회적 관계 및 지지기반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하였다. 즉 자신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타인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친사회적인 행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들의 교착위반이나 일탈행위 등의 학교생활 부적응 행동은 같은 소외집단 내에서나마 또래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행동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정이나 학교장면에서 적당한 수준의 관심과 기대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같은 소외집단 또래들의 인정보다는 보다 긍정적 집단 내에서 인정을 받게 함으로써 그들의 부적응 행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참가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경우 2단계와 3단계의 발달적 특징을 동시에 보이므로 이들의 부적응 행동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도덕판단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학교와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 및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제한점으로는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표본이 작으며 학업성적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등 학생들의 도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수들을 보다 정확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큰 표본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도덕판단에 있어서 일반-부적응 학생들간의 차이를 지적하였을 뿐 그러한 차이에 대한 이

유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가 비교적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나 일반학생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도덕발달 단계의 차이가 도덕지향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자 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기태, 류기형, 최선화, 최송식, 최인숙, 조덕자, 박봉관, 서덕웅, 오홍숙, 양주근 (1996). 학교부적응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위한 문제해결 프로그램 연구.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연구, 6, 199-266.
- 김상윤 (1989). 아동의 인지적 도덕성발달을 위한 인위적 노력의 재고. 고신대학 논문집, 17, 147-166.
- 김상윤 (1994). 아동의 도덕영역중시 및 도덕상대주의의 발달. 고신대학, 아동연구, 3, 2-18.
- 김선영 (1987).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실현성 및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기 (1989). 중학생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삼 (1988). 고등학교 학생의 도덕성발달수준과 문제점의 검사에 의한 측정치와의 관계.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 (1986). 인지발달론의 관점에서 본 도덕성 발달연구의 문제와 전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이론, 1(1), 55-84.
- 문용린 (1994). 한국청소년의 도덕성발달진단을 위한 연구: 도덕판단력 진단검사를 위한 표준화 연구.
- 박병희, 장경준, 신지용 (1996). 주제정의검사 (DIT)를 사용한 비행청소년의 도덕발달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5, 594-599.
- 박종영, 이종현. (1982). 학생들의 도덕판단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3, 159-171.
- 박찬주 (1989). 한국인의 도덕판단과 행동선택에 관한 DIT 적용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영진 (1987).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수준과 내외통제성 측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향인 (1989).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인지발달수준과 도덕판단력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훈 (2000). 딜레마토론 프로그램이 의과대학생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도덕교육연구, 12(2), 227-253.
- Baek, H. J. (1999). *Children's moral development examined through Kohlberg's hypothetical dilemmas and f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 Chandler, M. & Moran, T. (1990). Psychopathy and moral development: a comparative study of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youth. *Development Psychopathology*, 2, 227-246.

- Cohen, J. (197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NY: Academic Press.
- Cohn, L. D. (1991). Sex differences in the course of personality developmen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 252-266.
- Colby, A. & Kohlberg, L. (1987).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ment*, Vols, 1 &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by, A., Kohlberg, L., Gibbs, J., & Liberman, M. (1983). A longitudinal study of moral judgment. *Monograph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8, 1-124.
- Daniels, J., D'Andear, M., & Heck, R. (1995). Moral development and Hawaiian youths: Does gender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 90-93.
- Dien, D. S. F. (1982). A Chinese perspective on Kohlberg's theory of moral development. *Developmental Review*, 2, 331-341.
- Edwards, C. D. (1975). Society complexity and moral development: A Kenyan study. *Ethos*, 3, 505-527.
- Edwards, C. D. (1978). Social experience and social judgment in East African young Adult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3, 19-29
- Garmon, L. C., Basinger, K. S., Gregg, V. R., & Gibbs, J. C. (1996). Gender differences in stage and expression of moral judg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2, 418-437.
- Gavaghan, M. P., Arnold, K. D., & Gibbs, J. C. (1983). Moral judgment in delinquents and nondelinquents: recognition versus production measures, *Journal of Psychology*, 114, 267-274.
- Gibbs, J. C., Arnold, K. D., & Burkhardt, J. E. (1984). Sex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of moral judgment. *Child Development*, 55, 1040-1043.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C. & Attanucci, J. (1988). Two moral orientations: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Merrill-Palmer Quarterly*, 34, 223-237.
- Gregg, V., Gibbs, J. C., & Basinger, K. S. (1994). Pattern of developmental delay in moral judgment by male and female delinquents. *Merrill-Palmer Quarterly*, 40, 538-553.
- Keppel, G. (1991). *Design and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Kohlberg, L. (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 research Chicago: Rand-McNally.
- Kohlberg, L. (1984).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 2)*: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Haper and Row.
- Lever, J. (1978). Sex differences in the complexity of children's play and ga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s*, 43, 461-483.
- Ma, H. K. (1988). The Chinese perspectives on moral judgment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3, 201-227.
- Masten, A. S. & Coast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American Psychology*, 53, 205-220.
- Narvaez, D. (1993). High achieving students and moral judgment.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6(3), 268-279.
- Nisan, M., & Kohlberg, L. (1982). Universality and cross-cultural variation in mor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d cross-sectional study in Turkey, *Child Development*, 53, 865-876.
- Rest, J. R. (1979).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NY:Praeger Press.
- Smetana, J. G. (1990). Morality and Conduct Disorders. In M. Lewis & S. Miller(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p.157-179). New York: Plenum Press.
- Snarey, J. (1985). Cross-cultural universality of social-moral development: A critical review of Kohlbergian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7, 202-232.
- Snarey, J., Reimer, J., & Kohlberg, L. (1985). The socio-moral development of Kibbutz adolescents: A longitudinal, cross-cultur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3-17.
- Tappan, M. B., Kohlberg, L., Schrader, D., Higgins, A., Armon, C., & Lei, T. (1987). Appendix: Heteronomy and autonomy in moral development: two types of moral judgments. In A. Colby & L. Kohlberg (Eds.)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ment (vol.1): Theoretical foundations and research valid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rnton, D. & Reid, R. L. (1982).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role of understanding in conduct, *Developmental Review*, 1, 401-42
- Tietjen, A. M., & Walker, L. J. (1985). Moral reasoning and leadership among men in a Papua New Guinea societ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982-992.
- Turiel, E., Edwards, C. D., & Kohlberg, L. (1978). Moral development in Turkish childre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9, 75-86.

- Walker, L. J. (1986a). Experiential and cognitive sources of moral development in adulthood. *Human Development, 29*, 113–124.
- Walker, L. J. (1986b). Sex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A rejoinder to Baumrind. *Child Development, 57*, 522–526.
- Walker, L. J. (1989). A longitudinal study of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60*, 157–166.
- Walker, L. J., & Moran, T. J. (1991). Moral reasoning in a communist Chinese society. *Journal of Moral Education, 20*, 139–155.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2. Vol. 15, No. 1, 57 - 79

Moral judgment of maladjuste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Focused on moral developmental stages and orientations

Hye-Jeong Baek · Soonmook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compare the moral judgments of the 19 maladjusted adolescents in the senior high school with those of the 16 normal adolescents based on Kohlberg's theory of moral judgment. In particular, their moral stages and orientations were explored through interviewing the students with Kohlberg's hypothetical dilemmas(Form A). As result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maladjusted and normal students in terms of moral stages and orientations were found. That is, the maladjusted students not only showed lower moral stages but also oriented towards the egoistic consequences more than the normal students did. Also, the latter tended to orient the fairness than the former did. The difference in the use of the fairness orientations is not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but the size of effect is large. Also, in terms of the size of effect,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use of the upholding normative order orientation and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level of maladjustment and gender in the egoistic consequences, the ideal consequences and the fairness orientations were found. The present study suggests new perspectives on the understanding of adolescents' moral judgment through figuring out the relations between moral stages and orientations of the maladjuste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Keywords: moral orientations, moral stages, moral reasoning, maladjuste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